

김



지

평



#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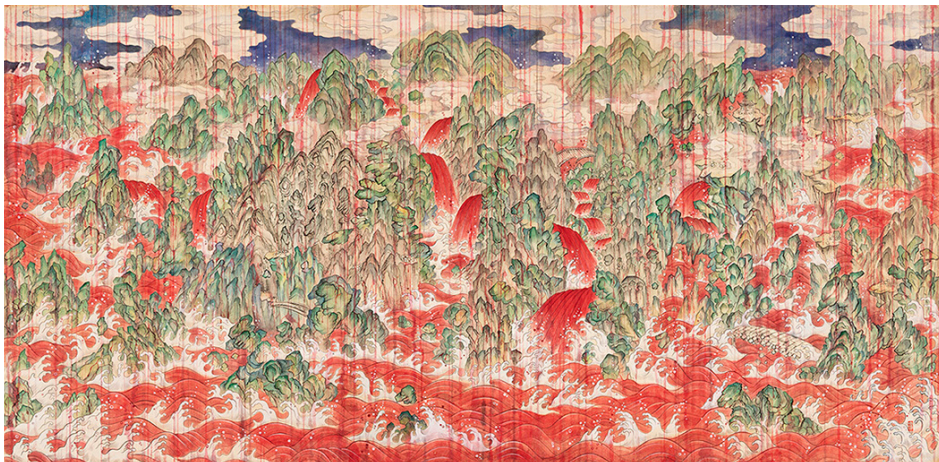
## 지 평

김지평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김지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주로 책가도, 문자도 등의 민화 양식, 단청의 장식성 등을 시대에 맞게 창작하는 것에 매진했다. 2013년 개인전 《찬란한 결》(2013)을 계기로 동양화 재료나 화론 등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다. 가족사를 함께 다루며 근대 이전의 복한을 문화의 공간으로 본 《평안도平安道:圖》(2014), 동양화론의 주체로서 여성상을 제안한 《재녀덕고才女德高》(2017), 회화 재료와 자연의 순환관계를 다룬 《기암열전奇巖列傳》(2019) 등의 개인전을 통해 새로운 인식 방법과 사유의 전환을 모색해 왔다.



《먼 곳에서 온 친구들》(2020)에서는 ‘장황(裝潢:표구매체)’에 깃든 문화적 의미를 중심으로 시각문화를 통한 시선의 역사, 여성의 몸, 신화적 서사 등의 관심 주제를 두루 선보였다. 주요 관심사는 ‘전통’의 다양한 조건, ‘동양화’라는 제도, 재야의 미술사, 자연, 탈 식민적 상상의 가능성 등이다. 2023년까지 총 12회의 개인전을 열고 70여 회의 단체전시에 참여했으며 작가 활동과 더불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미술공간 ‘산수문화’를 운영했다.





〈음(淫)〉

한지에 옷칠, 수묵채색

92×188.5cm, 2014,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디바—할머니〉

3쪽 병풍: 나무패널에 배접 비단, 한지, 마이크, 혼합재료

약 165×155cm, 가변적, 작가 소장



김지평  
작가 연구  
2024

총괄기획  
한윤아

글  
조인수, 임옥희,  
소진형, 캐롤 잉화 루,  
콘노 유키, 한윤아,  
이문석, 류혜민

인터뷰  
한윤아

아카이빙  
류혜민, 이현주

촬영  
홍철기

번역  
태이(한영),  
이경탁(영한)

편집  
한윤아

디자인  
이재민

출판  
타이그레스 온 페이퍼

©KimJipyeong  
tigress.on.paper@gmail.com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2023  
《작가 조사—연구—비평》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가연구  
조사구평

